



◇4·5월 불교계에서는 봉축 문화행사를 다채롭게 마련한다. 사진은 지난해 열린 연등축제의 연등축제연대회에서 타악뮤지컬팀 '아닌법석'이 공연하고 있는 모습.

### 음악회 · 영산재 · 목공예 시연 등 부처님 오신날 앞두고 행사 풍성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봉축 문화 행사가 다채롭게 열린다. 연등축제가 열리는 5월 4일 조계사 앞 우정국로에서 영산재, 연등축제, 목공예시연, 불화전시회, 연꽃 그림그리기, 선무도 시범 공연 등 풍성한 문화행사가 준비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단체별로도 아기자기한 행사가 불자들의 참여를 기다린다.

광주불교방송은 23일 오후 6시 남도예술회관에서 '연합합창제'를 연다. 이번 음악회에서는 백양사를 비롯해 금광사, 원효사, 광주 한마음선원, 향림사, 증심사 등 전남지역 6개 사찰 합창단이 음성공양을 한다. 또 송나영(정광중 2년)양이 판소리 '수궁가'도 들려준다. (062520-1114. 24일 저녁 7시30분 나리바나 실내악단은 여의도 KBS홀에서 정기 연주회를 갖는다. 서현석 교수(한국종합예술학교)가 지휘를 맡는 이번 연주회에서는 '루드밀라 서곡'을 비롯해 사물놀이와 '첼레스티', 차이

코프스키의 '백조의 호수', 합창과 오케스트라를 위한 교성곡 '부처님 이야기' 등이 연주된다. (02415-2599. 경남 함안 마애사는 27일 오후 3시 산사음악회를 연다. 김병조씨의 사회로 진행될 이번 행사에서는 현철, 조항조, 이은하, 김혜연, 이지훈, 사크라 등이 초청돼 대중가요와 찬

4일부터 11일까지 양재동 구룡사 문화회관에서 '봉축 기념 사진전시회'를 기획한다. 전제우씨의 '서용스님의 큰 미소'를 비롯해 박봉수씨의 '부도전의 아침', 강승규씨의 '산사음악회', 김호연씨의 '감은사지' 등 50여 작품이 소개된다. (02575-7766. 강남 봉은사는 5월 2일부터 8일

까지 전통 등 전시회를 연다. 연등, 용등, 코끼리등, 호랑이등 등이 선보이며, 전통 등 제작시연과 등 만들기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된다. (02511-6070.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위한 문화 행사도 마련된다. 서울불교청년회는 27일 오후 1시 동국대 중강당에서 '어린이 찬불가 경연대회'를 연다. (02730-9108. 5월 4일 오후 1시 종로 밀레니엄 플라자에서는 파라미타 청소년협회 주최로 '청소년 댄스 경연대회'를 연다. (02723-6166. 김주일 기자 jkim@buddhapia.com

### 전남 6개사찰 연합합창단 음성공양 나리바나 악단 교성곡 '부처님이야기' 연주 봉은사, 전통등 제작시연·등 만들기

불가를 부른다. (055)585-3114. 부산 불교합창단도 26일 오후 3시 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음악회를 갖는다. 1500명의 대규모 부산지역 연합합창단이 참여해 '우리도 부처님 같이' 등 찬불가와 가요 20곡을 선사한다. (051)867-0501. 대구 불광사도 5월 1일 저녁 7시 대덕문화전당에서 불교합창단 봉축음악 발표회를 개최한다. (053)253-6388. 대한민국의 불교사진연합회는 5월

### 2003 서울예술제·반전 평화의 밤

#### 자연스님 대금연주·중국무용가 진심 초청

양재동 구룡사와 한국어 울림위원회는 29일 저녁 7시 30분 서초동 국립국악원 예악당에서 '2003서울 예술제, 반전평화의 밤'을 연다. 이번 공연에서는 가야금, 첼로, 그리고 사물이 어우러지는 즉흥연주단 '신모리'의 반주에 맞춰 자연 스님(한국어울림위원장)이 대금을 연주한다. 또 마임니스트 유진규씨의 '판토마임', 중국 상해 오페라 예술감독인 진심의 무용, 중국 일급민족악기인 '얼후' 연주가 마사휘의 연주 등으로 펼쳐진다. 이외에도 타악기 그룹 '뿌리파'와 팍페라 가수 '마리아'



◇대금연주를 하고 있는 자연 스님.

도 특별 초청돼 연주하는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자연 스님은 "음악, 무용, 마임 등 다채로운 장르의 예술을 통해 사랑의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한다"고 기획 취지를 밝혔다. (031)256-6938

가 오명숙씨는 30일부터 5월 6일까지 '나한 사진전'을 기획한다. 이번 전시회는 나한전에 모셔진 갖가지 모습의 '나한'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



◇염영달씨의 사진작품 '차안(此岸)'.

부산 영광갤러리는 22일부터 5월 18일까지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불교 관련 사진전을 네차례 연다. '나한(彌漫)'을 주제로 찍은 사진 작

경내의 문란적인 세계를 연출해 낸 작품들이 주를 이룬다. 대웅전을 비롯해 각 전각들에 빛이 들어온 모습을 자연스럽게 담아냈다. 또 사찰속에서 발견한 연꽃과 들꽃 등을 찍은 작품들은 소담스러운 느낌을 준다. 염영달씨의 '차안(此岸)과 아우라'는 5월 14일부터 18일까지 개최된다. 이번 전시에서는 흘러내리는 샘물앞에 놓여 있는 양증맞은 동자상의 모습을 표현한 사진 등이 전시된다. (051)816-9500 김주일기자

### 가정용 팔상도 무료보급 동양화가 이한동 화백

동양화가 청곡 이한동 화백(60)이 가정용 팔상도를 제작해 무료 보급에 나섰다. 이번에 선보이는 팔상도는 수려한 산수화를 배경으로 바위나 계곡, 정자 등에서 수행하는 스님들의 모습과 법륜 듣는 장면 등을 표현했다. 또 그림 위에 붙여진 설명은 선화가 수인 스님이 썼다. 무량회 회원으로 10년간부터 불교에 관심을 가졌다는 이 화백은 "평생 산수화만 그려왔지만 불교공부를 하면서 불교미술로 인생을 회향하기로 했다"며 "가정에서도 부담없이 걸어놓고 부처님의 향훈을 느낄 수 있도록 산수화



◇이한동 화백의 가정용 팔상도의 구도를 적절히 활용했다"고 말했다. 이 화백은 앞으로 '가정용 108나한도' 작업도 할 계획이다. (011)747-8692

### 도심서 만나는 산사, 나한...

#### 부산 영광갤러리 네차례 봉축 사진전

경내의 문란적인 세계를 연출해 낸 작품들이 주를 이룬다. 대웅전을 비롯해 각 전각들에 빛이 들어온 모습을 자연스럽게 담아냈다. 또 사찰속에서 발견한 연꽃과 들꽃 등을 찍은 작품들은 소담스러운 느낌을 준다. 염영달씨의 '차안(此岸)과 아우라'는 5월 14일부터 18일까지 개최된다. 이번 전시에서는 흘러내리는 샘물앞에 놓여 있는 양증맞은 동자상의 모습을 표현한 사진 등이 전시된다. (051)816-9500 김주일기자

### '살며 생각하며' 등 4개프로 신설

#### 불교방송 봄철개편, 세계음악여행 재편성

불교방송(사장 김규철)이 청소년 프로그램 '살며 생각하며'와 세계 각국의 민속음악을 들어보는 '세계음악여행' 등 4개 프로그램을 신설하며 봄철 새단장을 했다. 이번 개편에서 눈에 띄는 것은 심야프로그램 강화다. 매주 월-금요일 밤 11시 5분부터 새벽 1시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살며 생각하며'는 덕신 스님(前 조계종 총무원 총무국장)이 청소년과 대화의 장을 열어 고민과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이다. 토-일요일 같은 시간대에는 지난해 가을 개편 때 폐지됐던 '세계음악

여행(토-일, 밤 11시5분~새벽 1시)'이 청취자들의 요청에 의해 재편성됐다. 그동안 불교방송 게시판에는 이 프로그램을 다시 듣고 싶다는 청취자들의 글이 쇄도했다. 이번에 진행을 맡은 강민석 씨는 '노래를 찾는 사람들'에서 활동했으며, 애니메이션 '마리아 이야기'의 음악을 제작하기도 했다. 이 밖에 매일 오전 6시 5분에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출연해 불교 사상과 문화, 미술 등을 알기 쉽게 전해주는 '불교강좌'가 새롭게 선보인다. 소리꾼 김용우 씨가 진행하는 '국



◇강민석씨가 새롭게 선보인 '세계음악여행'을 진행하고 있다.

악발견'에는 소리꾼 남상일과 함께 하는 '판소리 따라잡기', 세계의 토속 민요를 소개하는 코너 등이 방송된다. 그동안 밤 11시에 방송되던 '불교문화산책'과 'BBS 초대석'은 밤 9

시로 시간대를 옮겼고, 오후 5시 10분에 방송되는 '무명을 밝히고'는 일요일까지 확대 편성됐다. '교리강좌'와 '무상을 넘어서', '지혜의 샘터' 등 7개 프로그램은 폐지됐다. 여수령기자

### 감산대사 수행일대기 한국 초역



■ 신국판 변형 248쪽 값 8,000원

### 마땅히 가야 할

## 눈물겹도록 아름다운 옛어른의 공부 길...

### 하지만 가지 못하고 있는

- 이자전自傳의 원제는 『감산노인자서연보실록 感山老人自序年譜實錄』으로, 감산스님이 자신의 평생사수生事를 기술한 일종의 자서전이지만, 문학적 전기傳記라기보다는 년年 단위로 주요사건을 기록한 개인적인 행적의 기록에 가깝다. 때문에 매우 간략하게, 주로 저자 자신의 직접 체험을 중심으로 기술하고 있으며, 당시의 상황에 대한 충분한 배경 설명이 없는 대목이 많다. 그러나 중요한 시기의 이야기들은 주변 인물들과의 구체적인 대화나 사건 전개를 상세히 묘사함으로써 당시의 정황을 생동감 있게 전해 주고 있다. 특히 젊은 시절 깨달음을 얻어 가는 이야기는 경이롭기까지 하다. -

사물을 소유하는 사람(人)을 말할 수 없다. 대저 만물은 헤아릴 수 없이 많고도,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을 소유하는 것은 사람이다. 사람이 소유하지 않으면 만물이 어떻게 존재하겠는가? 사물을 소유하는 자는 반드시 사물을 추구한다. 사물을 추구하는 자는 사람을 찾기 쉽다. 사람이 없는데 누구와 더불어 도를 말하겠는가? 사물이 사람에게 끼치는 영향은 대단하다.

지은이 감산(感山, 1546-1623) 스님은 윤서 주공, 자백 진가, 우익 지옥과 더불어 명대의 4대 고승으로 일컬어진다. 12세에 출가하여 19세에 구족계를 받았다. 1581년에 오대산에서 무차회 無差會를 열어 법을 설하여 5백여 명의 대중이 모였다. 1597년에는 조계曹溪에 머물면서 선禪을 부흥시켰다. 1616년에는 여산麓山 오유병에 법운선사法雲禪師를 건립했고, 1622년에 조계로 돌아와 다음 해에 입적했다.

옮긴이 대성(大晟) 스님은 1989년 순천 송광사로 출가했다. 『참선요지』와 『방편개시』(여시아린)를 우리말로 옮겼으며 최근에는 라마나 마하르쉬 관련 저작들을 '아루나찰라 총서'(탐구사)라는 이름으로 번역하고 있다.